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온라인 개장 100일째…총 44억원 판매



1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 최문순 지사(가운데)가 국내 MD 구매상담회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공식 폐막 이후 1년 내내 온라인 박람회로 운영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온라인 개장 100일 만에 44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강원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박람회 방문객은 폐막 당시 1천728만명에서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2천267만명이 더 늘어난 3천995만명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판매액도 박람회 기간 13억7천만원에서 30여억원이 증가해 총 44억원의 매출액을 보였다. 이는 온라인 판매로 전환한 이후에도 100여일간 30여억원이 온라인상에서 추가 판매돼 317%의 매출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이처럼 판매액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추진된 온라인 박람회 전환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도내 기업의 항구적 판로 개척 결과라는 게 도의 분석이다. 또 강원마트 연계 이벤트, 라이브상거래를 통한 막강 홈쇼핑, 찾아가는 기업제품 특별전, 소규모 온라인 수출 상담 및 국내 MD 상담도 한몫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10월 개막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 제8회 GTI 박람회에는 296개 기업이 참가해 890개 제품을 3D로 전시하고 이를 쇼핑몰과 연동·운영했다. 제9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오는 10월 14~17일 나흘간 원주 댄싱공연장 일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평화와 번영, 동북아 대표 글로벌 경제·한류 축제'다.

도는 국내 기업은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해외 기업은 5월부터 8월까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안권용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1년 내내 박람회로 운영한 결과 매출이 지속해서 늘었다"며 "국내 외 프로모션 등을 가동해 도내 기업 매출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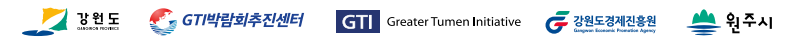


N GTI박람회 Q 검색

2021 제9회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오프라인 2021.10.14(목) - 10.17(일) | 원주시 댄싱공연장 일원
온라인 1년 내내 (www.online-gti.com)
참가기업모집 2021.03.01 - 05.31 | 온라인 접수 (www.gtiexpo.org)

| 주최 / 주관 |



| 후원 |

